

뉴스레터



제4권 5호 2014년 5월 11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아니지만 교회의 절기로 보편화해 된 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자라나는 어린이가 어떻게 교육되느냐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빨간 카네이션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쳤다.

5월 가정의 달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다.

어린이주일은 어린이들의 가능성과 꿈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1856년 메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미국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켜 오다가 1946년부터 지켜오던 5월 5일 어린이날과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어린이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5월 둘째 주일인 어버이주일은 본래 어머니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웨스터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간이나 꾸준히 봉사해 온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스(Jarvis)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그녀를 기념하기 위한 추도식을 가지며 그녀의 딸, 안나를 초청하여 어머니인 자비스부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녀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

이 날이 공식적으로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주일이 5월 둘째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개칭하여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았으며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의 풍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님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다. 그 뜻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늘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뜻으로 자신의 가슴에 달기를 시작했다.

(편집부)

CONTENTS

가정의 달 5월	1
교회뉴스	1
담임목사 컬럼	2
부활 주일	3
단기 선교	4
선교걷기	5
추천도서	5
4월 포토 갤러리.....	6
5월 일정	7
예배와 모임 안내	8

2014 델라웨어교회연합회 연합부흥회

지난 4월 4일(금)~6일(주일)까지 델라웨어교회연합회 연합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졌다. 금요일은 델라웨어 침례교회에서 토요일은 웰빙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주일은 본교회에서 델라웨어 한인교회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되어 부흥집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마쳐졌다.



2014 부활주일

지난 4월 20일(주일) 부활주일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연합예배가 있었다. 어린이 성가대, 청소년 성극, 성가대 특별 칸타타, 유아세례, 등등 여러 순서로 부활의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교인 사진촬영도 있었다.

제5회 여선교회 선교걷기

지난 4월 27일(주일) 오후 델라웨어볼티보어 연합회 주최로 제 5회 선교걷기가 볼티모어에서 있었다. 이 선교걷기를 통해 모여진 선교비는 아시아전도부인사역을 위한 선교비로 전국연합회에 보내지게 된다.





송중남 목사

“사랑은”

담임목사 컬럼

제 아내는 키친에서 쓰는 페이퍼 타월을 눈에 안 띄는 곳에 둡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놓고 식구들이 함부로 뜯어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냅킨은 몇 장을 써도 신경도 안 쓰면서 페이퍼 타월은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하고 그저 일회용 소모품일 뿐인데 그것을 함부로 뜯어 쓰면 아껴서 쓰라고 잔소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페이퍼 타월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기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새로 뜯은 깨끗한 페이퍼 타월을 가지고는 그릇의 물기를 말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만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하면서 그것을 빨아서 마루바닥 같은 곳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버리는가 하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것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 벗는 장소 같이 지저분한 곳을 닦고 나서, 그것이 정말 더 이상 못쓰게 될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그것을 버립니다. 참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까짓 페이퍼 타월이 뭐라고, 왜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는지..., 한번 쓴 종이를 빨아가면서까지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지...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내가 지난 4월에 중국 선교를 간 동안 잠시나마 키친 경험(?)을 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월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퍼 타월은 종이인데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치 형짚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빨아서 사용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타월의 놀라운 흡수력에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꼭 페이퍼타월 홍보하는 것 같은데, 물이면 물, 먼지면 먼지...모든 것을 쓱쓱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빨아서 먼지 같은 것을 닦으면 페이퍼타월의 그 뛰어난 흡수력으로 먼지나 티끌 같은 것들을 자신의 몸에 다 붙게하는 거였습니다. 페이퍼타월의 그 대단한 흡수력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부들이 그 흔한 페이퍼타월을 한번만 쓰고 버리지 않고, 빨아가면서까지 다시 또다시 쓰는지, 지난 4월의 짧은 경험을 통해 새롭게, 정말 새롭게 알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생각을 하면, 오늘은 자식 된 사람들의 가슴이 괜히 먹먹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처럼, 내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니까,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해야 할 감사도, 마음의 표현도, 사랑도 다하지 못하고 늘 미루면서 사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잘 해야지....그렇게 미루기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신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참으로 강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함입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마르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랑거리이든 흠이든,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슴에 다 끌어안고 가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밀쳐내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흡수력이란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또 참아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 사람구실을 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페이퍼 타월에서 저는 메시지 하나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닦아주며, 밀쳐내지 않고 끌어안아주는 것, 쉽게 헤치지 않고 강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흡수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최영옥 권사 (예배부장)

2014년 부활주일, 지난 4월 20일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는 날이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교회 예배는 EM,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스캇 드라마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축하드렸다. 이날 온성도들의 축복속에 Ryder Rutledge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가족들도 함께 와서 아기의 세례를 축하해 주었다.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우리교회성가대는 이날 특별히 할렐루야를 합창해주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우리들에게는 귀한 은혜와 기쁨을 안겨 주었다.

올해 우리교회 부활절 예배는 한마당 축제였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서 손뼉치며 찬양을 드

리고, 춤을 추고, 말씀의 꿀을 먹고, 여선교회에서 마련한 맛있는 점심까지 배불리 먹고, 이것보다 더 기쁜 잔치가 어디에 또 있을까? 하나님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 하시며 싱글벙글 웃우시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부활절 하루뿐만 아니라, 매주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온누리에 울려 퍼져서 우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과 기쁨과 소망의 행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3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중국훈련”

송은순 사모

주님의 도우심과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4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아시아전도부인 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이 개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기에 약간은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오고가는 길,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한국에서 장춘까지 비행기로 2시간, 그리고 장춘에서 목적지까지(상세한 지명은 알리지 말라고 함) 자동차로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과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



기에서 낡은 밴을 타고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인데 그곳에도 개발 붐이 불어서 허허벌판에 고층 아파트를 곳곳에 짓고 있는 풍경이 차창 밖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하는 선교는 현지인들을 전도부인으로 길러내는 여성 훈련입니다. 올해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한국여선교회와 미국 여선교회가 함께 회관을 지어준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첫날은 계삭회(3개월에 한번 모이는 여선교회 모임)로 모이는 날이므로 8개교회에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라오케 기계를 틀어놓고 힘차게 찬양과 율동을 하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곳에 여선교회가 조직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모이고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도부인 훈련의 열매라고 생각할수 있는 반가운 소식은 그곳에 4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간 워킹샷(글로벌 시대의 여성지도력, 인종차별, 여성과 환

경과 건강, 가정과 선교)이 그곳에 계신 분들의 연령과 살아온 배경등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열심히 적어가며 듣고 발표하는 모습은 기우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세 번의 성경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에스더, 루디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가지고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계신 연세가 높고, 가난하며, 현대 문명에서 많이 뒤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그 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에스더: 책임감, 루디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막달라 마리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마음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겠느냐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5개 교회(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도 있고, 가정에서 평신도의 인도하에 3-4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음)를 돌면서 그분들의 사정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통성으로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교는 가는 사람이 선교지에 계신 분들에게 무엇을 드리기를 위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깨달음과 성령의 만지심과 충전을 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해 간 것을 그분들과 열심히 나누었지만 사실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드린 것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곳은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고 가마솥에 밥을 지어먹는 곳이었습니니다. 성전 바닥은 온돌방이며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종도 있었습니다. 밥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쌀을 구별해서 떠두었다가 목사님 맥 식사를 해결해 주는 성미를 아직도 그분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길은 진흙길이라서 눈이 왔다가 녹은 날은 신발에 잔뜩 흙이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웬지 이런 모든 풍경이 그렇게 낯설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많이 본 풍경이며 만났던 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헐레벌떡 달려오신 그분들의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굵은 주름과 굵은 등은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분들, 저희가 섬겼던 교회와 너무나 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갔다고 했습니다. 옛날 저희가 목회했던 시골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서울로 돈 벌러 가고 연세드신 분들만 시골마을을 지켰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내 마음 자세를, 주님 앞의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떨어지는 마음으로 처음 목회를 나가서 새내기 전도사 사모라는 호칭을 가지고, 더듬더듬 걸어가며 무릎 꿇었던 그 때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아직은 가난하고, 연세가 많고, 문화에 많이 뒤쳐진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중국을 품고, 북한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며 외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의 열정앞에서 제 첫 마음을 다시 뒤돌아보며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이번 중국훈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배광희 사모

선교회 텔라웨어볼티모어 연합회 주최, 선교견기가 4월 27일 주일 오후에 볼티모어에서 있었다. 우리교회 단독으로 3년동안 해왔던 행사였는데 작년부터는 에텐교회와 우리교회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로 에텐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었다. 작년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았고 추워서 잔뜩 움츠렸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날이 돌아와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잔잔한 호숫가를 걸으며 새삼스럽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숫가에는 분홍색 노란색꽃들이 형형색색으로 만개했고, 연두색 이파리들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는데 에텐교회와 우리교회 성도들까지 합해지니 그 아름다움이란 그 어떤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거리가 멀어서 우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걷지는 못했지만 (우리교회 17명 참가) 에텐교회에서는 유모차를 탄 아기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연세드신 할머니까지 동

참해서 함께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긴겨울을 끝내고 다시 피어나는 새싹들처럼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과 헌신이 다시 새롭게 싹이 트고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걸었다. 선교견기에 동참해주고,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 준 에텐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걷지는 못했지만 선교비로 동참해주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아시아전도부인 사역이 더욱 왕성해 지리라 믿는다.

약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우리들을 찾아와서 조선 땅에 전도부인을 길러냈던 선교사들의 그 헌신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기에, 여선교회전국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아시아전도부인 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걸었다. 누군가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기위해 걷는

발걸음이 바로 이 선교견기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바로 이 선교 견기가 아닌가 한다.

아름다운 봄날에 소풍가듯이 떠나서 좋았고, 새로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좋았고, 걸어서 건강에도 좋았고, 주님의 소원인 선교에 동참하니 더 좋았고...좋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막 안겨 주었다.



추천도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저자: 존 스토틀

『교회』는 반대,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이란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자세를 잘 보여 준다. 사람들은 제도화의 기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반대한다. 확립된 질서와 그에 따르는 절대적 특권을 혐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배척하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교회가 이러한 악들로 극히 타락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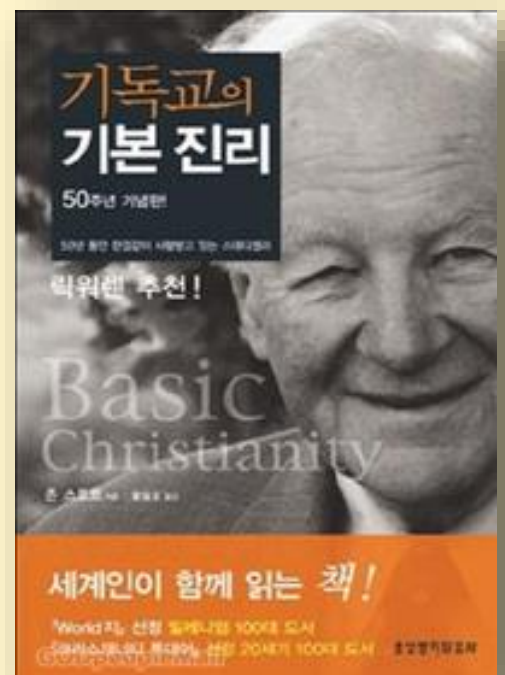
하지만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현대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것처럼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정한 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와 그가 세운 교회의 현 상태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매력을 잃지 않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반제도적

인물로 그의 말 가운데 혁명적 색채를 띤 부분이 있었고, 또한 사상이 결코 부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어김없이 실행했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 그렇지만 그는 진실한 존재인가?

50주년 기념판. 50년 간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인 이 책은 성경의 메시지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화답하라는 강력한 도전이 특징인 책이다.

선정 밀레니엄 100대 도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100대 도서로 선정된 책이다.

(도서부: 김상환집사)



2014년 4월 포토 갤러리



부활 주일 - Easter 2014
4월 20일



아동부 행사 '연 날리기' - 4월 6일

제5차 선교걷기 (델라웨어볼티모아 여선교회연합회)
4월 27일

May 2014

2014년 5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금요일 큐티 모임	3 * 목장지도자훈련 * 청소년 새벽큐티 * 토요일 큐티모임
4 * EM 연합가족예배	5 * 월요일 큐티 모임	6	7 * 자 마목장주최 수요예배	8 아름다운학교 소풍	9 * 금요일 큐티 모임	10 * 청소년 새벽큐티 * 토요일 큐티모임
11 * 어버이주일	12 * 월요일 큐티 모임	13	14 * 바나바목장주최 수요예배	15 * 아름다운학교	16 * 금요일 큐티 모임	17 * 청소년 새벽큐티 * 토요일 큐티모임
18 * 남선교회주최 골프대회	19 * 월요일 큐티 모임	20	21 * 캄보디아 목장주최 수요예배	22 * 아름다운학교	23 * 금요일 큐티 모임	24 * 청소년 새벽큐티 * 토요일 큐티모임
25	26 * 월요일 큐티 모임	27	28 * 스데반 목장주최 수요예배	29 * 아름다운학교	30 * 금요일 큐티 모임	31 * 청소년 새벽큐티 * 토요일 큐티모임

June 2014 - 6월의 일정

- 6월 1일(주일): EM 연합가족예배
- 6월 7일(토): 목장지도자훈련
- 6월 8일(주일): 성령강림주일
- 6월 12일(목): 아름다운 학교 방학
- 6월 14일(토): 청소년주최 어버이날 행사
- 6월 15일(주일): 삼위일체주일
- 6월 16일(월)-20일(금):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 6월 21일(토) 청소년부 Six Flag
- 6월 29일(주일) 전교인 대청소

전교인 수양회

일시: 2014년 7월 12~13일

장소: Double Tree Resort, Lancaster, PA
2400 Willow Street Pike, Lancaster, PA 17602

주제: 은혜와 친교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